

[12월 첫째주 가정예배]
긍정적인 삶의 태도

[찬송] 488 장

[예배를 위한 기도: 가족 중]

[본문] 빌립보서 4 장 9 절

[말씀]

주를 믿는 사람들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 장 23 절은 “무릇 지키기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음 속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사람은 절대로 맑고 밝고 환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마음속에 쓰레기 더미가 되어 우리의 인생을 해치는 것일까요.

먼저 만물을 (마이너스(-)의 심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마음의 쓰레기 더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모든 사물을 볼때 좋은 점(+)을 보지 아니하고 결점(-)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마이너스를 관점으로해서 인생과 사물을 보는 사람 중에 부정적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되는 마음의 태도를 갖고 남편을 바라보면 결점 투성이의 남편이 될 것이고, 그런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면 역시 결점 투성이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플러스되는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보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기 장점을 찾을 수 있기에 행복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삶의 태도라는 것은 인생을 바라볼 때 플러스면을 중점적으로 보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생을 보실 때 플러스면을 중점적으로 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좋은점을 중심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나쁜 점은 점점 개선해 나갈 때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삶의 태도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 미지근한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뜨겁게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태도로 맞으면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뜨겁게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마음은 인생을 밝고 맑고 환하게 해

줍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삶을 발전케 하는 아이디어가 산출되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족은 주님을 소망하며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 설교자]

우리 가족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며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긍정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지켜 주옵시고 항상 기쁨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복되게 하옵시며 이웃에 사랑을 나누어 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 머리에 손을 얹고/손을 잡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자녀이름)를 선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이름)가 신명기 28 장의 복을 누리게 하셔서 어디에 가나 사랑받고 존귀히 여김받고 칭찬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자녀이름)가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자라게 하시고 남에게 배려하며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성품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 다같이]

참고: 지구촌 교회, 가정예배 자료

[하늘보좌]



2024 년도 입례송입니다.
 핸드폰 카메라 어플을 열어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자동으로 재생이 됩니다.

[12월 둘째주 가정예배]

고통 속의 믿음

[찬송] 465 장

[예배를 위한 기도: 가족 중]

[본문] 고린도후서 12 장 10 절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핍박과 고통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세상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믿음에 대한 회의가 생길 때도 있고 어느 때는 극심한 고통으로 방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런 가운데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진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선언하기를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가 막힌 역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역설은 진리가 됩니다. 바울은 몇가지 사항을 자랑하고 나서 이 선언을 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인간이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강하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는 또 능욕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능욕을 당할 때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는 또 궁핍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궁핍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매일 풍성히 쓸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궁핍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는 또 핍박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세상 사람들로 부터 심한 핍박을 받을 때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담대히 핍박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는 또 곤란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곤란을 당하는 때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때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곤란을 자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적으로 볼 때 감추어야 할 수치인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바울은 자랑했습니다. 그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신앙의 유익이 됨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깨어지게 하며,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며,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해답을 찾게 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시련과 고통과 문제가 절망의 늪이 되지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삶을 재창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신앙인은 그 어떤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이 다가와도 뒤로 물러서서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는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 이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을 헤쳐 나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가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과 늘 함께 하십니다.

[기도: 설교자]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핍박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약해질 때마다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소망과 용기를 주옵시며 약한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 머리에 손을 얹고/손을 잡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자녀이름)를 선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이름)가 신명기 28 장의 복을 누리게 하셔서 어디에 가나 사랑받고 존귀히 여김받고 칭찬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자녀이름)가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자라게 하시고 남에게 배려하며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성품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 다같이]

참고: 지구촌 교회, 가정예배 자료

[12월 셋째주 가정예배]

축복의 기도

[찬송] 453 장

[예배를 위한 기도: 가족 중]

[본문]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가 올 한해 참으로 의미 있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나 혼자 잘 살겠다는 마음, 방탕하는 생활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함과 화평함을 좇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축복하고 나누어 주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축복받는 생활을 원합니다. 그러나 축복은 하늘 위에서 툭 떨어지거나 땅속에서 솟아오르지 않고 언제나 환경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한 축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자기에게 도움을 못줄 때에 사람들은 '내게 운이 없다'고 체념하고 운명에 굴복합니다.

그러나 여기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저주의 환경을 축복의 환경으로 손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축복을 할 때 그 축복은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씀이 나 자신과 가정의 생활환경에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어느 자매님의 얘기입니다. 그의 남편은 광산에 정신이 빠져서 봄부터 가을까지는 산에서 살고 겨울에만 잠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는 물론 안부편지 한 장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인 혼자서 애들을 키우며 가정을 꾸려 나가자니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남편의 흉을 보고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는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구절이 마음에 부딪쳐 왔습니다. 부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뒤로는 누구를 만나든지 남편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축복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남편에게서 따뜻한 편지가 왔습니다. 부인은 더욱 남편을 축복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생활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방탕한 생활을 그치고 완전히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오늘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효과를 발휘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까닭 없이 원수가 주리고 목마르거든 먹이고 마시우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축복하면 원수에게서 독이 빠져버리고 온순하고 유순하게 되어 우리에게 득을 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환경이 이와 같이 득을 준다면 왜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선생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오. 축복하기 싫을수록 더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축복이 넘치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기도: 설교자]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경건하고 화평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 머리에 손을 얹고/손을 잡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자녀이름)를 선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이름)가 신명기 28장의 복을 누리게 하셔서 어디에 가나 사랑받고 존귀히 여김받고 칭찬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자녀이름)가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자라게 하시고 남에게 배려하며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성품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 다같이]

참고: 지구촌 교회, 가정예배 자료

[12월 넷째주 가정예배]

분수에 맞는 생활

[찬송] 518 장

[예배를 위한 기도: 가족 중]

[본문]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이 사회에 부정이 만연해 있다고 개탄합니다. 부정의 원인을 보면 분수를 뛰어넘은 욕심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길에는 욕심이라는 덫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파탄 시키기 위해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이 덫을 슬기롭게 피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에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분수를 알고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욕심의 덫을 피하려면 요행이나 일확천금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행이나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고와 말과 행동을 해 결국 파탄에 이르고 맙니다. 행복은 도깨비 방망이의 요술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건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행복이 주어집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욕심의 덫을 피하려면 심은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직 성실 근면 충성되게 사는 삶에는 반드시 그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복 받은 성경의 인물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직 성실 근면 충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욕심의 덫을 피하려면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자기 운명과 환경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불길처럼 일어나는 욕심이 있습니다. 사람이 비교하려 들면 끝이 없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우리 가족은 이런 비교가 행복을 좀먹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헤아려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욕심의 덫을 피하려면 영원한 천국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얻고 잃는 것은 그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얻고 잃는 것은 다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풀의 꽃과 같은 영화 재물 권력 명예에 전 생애를 바치겠습니까? 이런 것에 절대적 관심을 쏟는 사람은 욕심의 장막 집이 무너지는 날 영원의 세계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욕심의 덫을 피하려면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욕심을 줍니다. 이런 마귀의 미혹에 빠진 사람은 이성을 잃고 욕심의 포로가 되어 비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끝내 멸망에 이르고 맙니다.

욕심은 겉모양은 아름다우나 맹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와 같습니다. 모양에 취해 다가갔다가 이 독사에게 물린 사람은 반드시 파탄에 이릅니다. 이렇므로 우리 가족은 욕심이 어떤 화려한 모양으로 다가 오더라도 현혹되지 말고 이를 이겨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 설교자]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욕심을 버리고 겸허한 자세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늘 인도하옵소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욕심을 버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 평강을 나누어 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 머리에 손을 얹고/손을 잡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자녀이름)를 선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이름)가 신명기 28장의 복을 누리게 하셔서 어디에 가나 사랑받고 존귀히 여김받고 칭찬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자녀이름)가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자라게 하시고 남에게 배려하며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성품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 다같이]

[12월 다섯째주 가정예배]

인생을 해치는 탐심

[찬송] 347 장

[예배를 위한 기도: 가족 중]

[본문] 누가복음 12 장 15 절

[말씀]

탐심은 인생을 해치는 무서운 독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비극적인 현상을 보면 모두 탐심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이 탐욕을 갖게 되면 모든 정상에서 빗나가게 되며 끝내는 하나님의 은총에서 빗나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 장 15 절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은 욕심을 벗어나고 항상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갖고 주님과 이웃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가족이 청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탐해 인본주의로 살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우리 가족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주권을 탐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해함과 상함이 없는 낙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온갖 과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한 뱀의 말을 듣고, 탐심에 사로잡혀 그만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영혼이 죽고 욕신이 흠으로 돌아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타락으로 이 땅엔 저주의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비극이 생겼습니다. 이따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살며 저주 속에서 비참하게 사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인간의 역사 처음부터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갈라지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관계가 파괴됩니다. 욕심은 친구와 친구 사이를 갈라 놓으며, 스승과 제자, 이웃과 이웃, 사회와 사회, 국가와 국가를 갈라 놓습니다. 누구든지 욕심을 품게 되면 행복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욕심이 들어 올 때 성령에 의지해서 쫓아내야 합니다. 욕심이 없는 가난한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우리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족은 성령에 의지해 욕심을 버리고 베풀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 설교자]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항상 심령을 새롭게 하여 욕심없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탐욕이 가득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 베풀며 살게 하옵시고 자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 머리에 손을 얹고/손을 잡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자녀이름)를 선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이름)가 신명기 28 장의 복을 누리게 하셔서 어디에 가나 사랑받고 존귀히 여김받고 칭찬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자녀이름)가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자라게 하시고 남에게 배려하며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성품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 다같이]